

장애인의 환경 특성이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지각된 재난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n Community Satisfac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Disaster Vulnerability

최 병 윤*

Byungyun Choi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 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 요인에 대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지각된 재난 취약성 인식이 매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도 함께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생활 환경에 대한 개선과 지각된 재난 취약성 수준 파악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 구현, 권리 신장 및 거버넌스 확대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분석 결과 비공식사회환경, 공식적 사회보장복지서비스, 물리적 환경 특성, 문화적 환경 특성 중 다수가 지역 만족도와 정(+)의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개변수로 사용된 재난 취약성도 환경적 특성 요인과 지역만족도 간의 관계를 일부 매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생활 여건과 사회현실을 고려한 해석의

* 한국행정연구원 공공리더십·갈등관리연구실 수석연구원

논문 접수일: 2023. 7. 31. 심사기간: 2023. 7. 31. ~ 2023. 9. 1. 게재확정일: 2023. 9. 1.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적 특성 차원에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인식하는 환경적인 편의와 개선 노력이 체감 수준으로까지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난 취약성을 낮춤으로써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는 증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장애인의 재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지역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양적 요소만이 아니라 지역의 총체적 조건으로서의 물적, 질적 환경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정부는 객관적 서비스 요소뿐만 아니라 주관적 만족 서비스 요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지역 만족도가 높아지면, 정주 만족도가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관심과 의지가 증진되어 삶의 만족이 증진된다는 점이다.

□ 주제어: 장애인, 지역 만족도, 환경 특성, 재난 취약성, 재난

This study attemp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actors that affect the community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as a disaster vulnerable group. In addition, it was also verified whether the perception of the disabled's perceived vulnerability to disaster acts as a mediating factor. Through research, it should be a starting point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disabled as local members, which has been neglected, and to find out the level of perceived disaster vulnerability to implement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on, enhance rights, and expand govern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any of the informal social environment, official social health and welfare services, physic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showed a positive (+) influence relationship with community satisfaction.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significant influence relationship on the community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according to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Disaster vulnerability, which was used as a mediator, also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ty satisfaction. This is a part that has room for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living conditions and social reality of the disabled in Korea. These results show that efforts must be made to improv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increase community satisfac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but the environmental convenience and improvement efforts perceiv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do not represent the level they feel. However, the fact that the community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can be increased by lowering the disaster vulnerabilit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s policy efforts to reduce the disaster vulnerability of the disabled

are important. In order to improve community satisfac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not only quantitative factors but also physical and qualitative environmental factors as overall conditions of the community.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provide public services, including not only objective service elements but also subjective satisfaction service elements. As community satisfaction increases, settlement satisfaction increases, and ultimately, interest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governance can be enhanced, thereby improving life satisfaction.

□ Keywords: People with Disabilities, Community Satisfactio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Disaster Vulnerability, Disaster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지역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삶을 영유한다. 더불어 일상생활의 관심과 욕구를 1차적으로 지역 내에서 충족시키는 경향성을 보인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심리적으로 지역에 대해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지역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는 만족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희창 외, 2004).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고유한 역할 중 하나가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이미애·이승중, 2016; 이경영 외, 2017). 일정한 지역을 준거로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은 지방정부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구를 지방정부에 투입하고 공공서비스의 산출로 인한 수혜를 받고자 한다(서재호 외, 2012: 34).

아울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지역에의 애착과 안정 속에서 소속감과 주인의식의 기반을 다지게 되고, 이를 통해 참여의 의지를 가진다(유호룡, 2009: 23; 이희창 외, 2004: 1-2). 그러므로 지방자치를 비롯한 민주주의 실현의 마중물인 민관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삶에 대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기능이 작동되고,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물리적 환경이 확보 및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생활주기별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 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양적·질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요청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지방정부가 맥락에 부합하도록 지역발전을 넘어 주민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거버넌스에의 참여를 고취시키기 위한 지역 만족도에 주목하였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인인 지역 만족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것보다 다차원적인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최지연·홍은영, 2016). 인구가 지역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교육적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김주진·나주몽, 2021). 이 밖에도 개인이 느끼는 삶의 질은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웰빙이나 행복감, 만족도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성보훈·윤선아, 2010: 103). 지역 만족도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경제나 교육 등 사회·환경적 요인(최영출, 2014), 지역사회의 주민들 간의 관계(Kasarada & Janowitz, 1974), 지역주민의 지역 애착(배은석 외, 2017), 문화관광 발전(최예나, 2016) 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 및 사회적 지위,

지역의 물리적 환경, 사회자본을 포함한 모든 변수(이희창 외, 2004)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객관적인 측면과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민의 주관적 만족에 관한 측면을 동시에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경쟁력 기반인 지역주민의 거버넌스 참여를 높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동등한 지역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지역만족도에 대한 관심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어 장애인 관련 연구들은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장애인들의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등 실제로 장애인들의 행복 또는 삶의 질에 관한 요소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또한 장애인들의 거버넌스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거주하면서 삶의 질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역 만족도에 어떤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지역을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인 재난 취약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었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 집단 중 장애인, 노인, 아동, 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역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흔치 않다. 그 중에서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지 않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환경 특성 요인에 집중하여 진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애인들 지역 만족도에 대해 어떤 환경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역 만족도를 연구할 뿐, 장애인의 재난 취약성 수준에 따른 지역 만족도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도시 인구 집중 현상과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복잡화,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서울의 현실에서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재난에의 취약성이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는 필요성이 요구된다. 장애인은 재난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비장애인들보다 더 큰 취약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재난의 상황에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취약한 집단이다. 장애인은 예측할 수 없고, 예방과 대비, 대응과 회복이 어려운 재난의 상황을 직면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을 느끼고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자연스럽게 지역 만족도의 저하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특성에 방점을 두고 그 영향 관계를 검증하는 한편, 그들의 재난 취약성 수준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

구를 통하여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적극적인 거버넌스 참여와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적극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 산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지역 만족도

지역 만족도(community satisfaction)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는 주로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이나 물리적 환경 제공에 대한 인식과 같은 사회적·심리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정의되어 왔다(Ladewig & McCann, 1980; Bardo & Hughey, 1984). 따라서, 지역 만족도는 해당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포괄한다(Fitz et al., 2016). 이 개념은 다양한 측면으로 정의되어 왔으며, 일반 만족, 환경에 대한 만족,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 대인관계 만족, 경제적 만족, 주거 만족, 이웃 만족, 정치적 만족 등 다양한 차원을 포함한다(Deseran, 1978; Fitz et al., 2016; Grzeskowiak et al., 2003; HannsScott, 2016; Nunkoo & Ramkissoon, 2011; Sirgy et al., 2008; Gamo et al., 2019).

지역 만족도의 개념은 초기에는 개인의 인식과 관련하여 정의되다가, 이후 지역의 전반적인 특성과 문화 등 지역 전체에 대한 만족으로 변화해 왔다(Bardo & Hughey, 1984). 또한, 연구마다 지역 만족도와 비슷한 개념들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삶의 만족도(최예나, 2016; 강기훈·김성길, 2019), 주관적 웰빙(김이수, 2016; 김이수·최예나, 2020), 주민 만족도(김주현·김한수, 2021), 삶의 질(양지훈·박지혜, 2019) 등과 혼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만족도의 정의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한편, 선행 연구들은 지역만족도의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연구와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 만족도를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만족도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대와 경험 사이의 일치를 반영하는 지표로서(Campbell et al., 1976; Lu, 1999; HannsScott, 2016) 지역사회를 만족하는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간과 자원을 더욱 투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Baum et al., 2010; Heaton et al., 1979; Lu, 1999; Theodori, 2001; HannsScott, 2016).

지역 만족도는 관계적 만족(relational satisfaction)과 공간적 만족(spatial satisfaction)

으로 구분된다(배은석 외, 2017). 관계적 만족은 개인이 속한 관계의 크기나 깊이에 따라 지역 만족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사회적인 요인인 지역 유대감과 이웃 만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공간적 만족은 개별 구성원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만족으로서,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을 포함한다. 지역 만족도는 개인의 삶의 질과 웰빙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Lu, 1999; Theodori, 2001; Hannsott, 2016; Gamo et al., 2019).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지역 만족도를 “지역주민이 지역의 정체성, 특수성, 문화, 인프라 시설 등을 반영하여 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정도”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지역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정부나 기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지역 만족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지역 만족도는 이러한 개념들을 더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사회의 안정성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참여와 공동체 형성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한다. 지역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정주성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정주성, 정체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며, 지역만족도까지 높아지며, 주민의 지역참여활동까지 가능하게 한다(Chavis & Wandersman, 2002). 이는 거버넌스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2. 재난취약계층으로서의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 연구

장애인은 개인의 특성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상태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이다(Tak & Shin, 2013). 이러한 장애인이 지각하는 지역 만족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 상태로 생활에서 만족 혹은 기쁨을 충분히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들의 지역 만족도와 정의상으로는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인간 삶에 대한 객관적 조건이나 환경에 관한 지표나 통계치도 중요성을 가지지만, 개인이 삶을 느끼고 경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결국,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지역 만족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지역 만족도는 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개별 구성원들이 가지는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이 관심 있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은 지역 내 구성원들의 인적 관계 등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만족을 의미하며, 관계

의 양이나 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주진·나주몽, 2021). 그러나 시간, 공간, 상황이라는 요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배은석 외, 2017: 141). 지역 만족도는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정 중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지역 환경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만족해하는지를 주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지역주민의 지역 만족도는 주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최근 복지정책의 효과 및 효율성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체감도 향상’으로 보고자 하는 연구 동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남진열·전영록, 2012; 이해승, 2012).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를 통해서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측정방식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삶의 질’, ‘복지 체감도’ 등이 있다. ‘삶의 질’은 지역이라는 환경적 범위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만족을 측정하는 것에 더 적절하며 ‘복지체감도’는 개념의 범위 및 측정의 방식 등의 측면에서 실체가 파악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박해금, 2018).

이와 같은 지역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갖는 의미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역 만족도를 느끼게 만드는 인과 매커니즘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그 양상에서 비장애인과는 다를 것임은 자명하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재난에 대하여 더 취약하고 이로 인해 지역 만족도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확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난취약계층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아동, 외국인, 장애인 등으로 범위 설정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장애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재난취약계층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들마다 지각하는 재난 취약성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으로 인하여 장애인을 서비스의 수혜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수요자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정부 주도의 공급자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남용현, 2014).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의 장애인 지원체계는 정책개발과 집행에 용이한 체계였다.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 주도로 이루어져 왔던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이 2019년부터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의 단계적 개편(보건복지부, 2019)¹⁾이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한 필요조건

1) 그 첫 단계가 바로 1988년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어왔던 1~6급으로 장애등급을 나눈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수요자인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들의 지역 만족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의 상황에서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대책은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를 고려하여 수립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지원하는 정책일수록, 사회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고찰하고 재난상황에서의 변이현상을 탐구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래에서는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구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규모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장애인의 주관적 인식 이슈는 장애의 유무, 유형, 정도를 비롯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특성에 의한 삶의 질의 결정에 대해 연구가 절대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비단 장애인 개인이 지닌 특성에 의한 장애와 지역 만족도만이 아닌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에 의한 장애와 지역 만족도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관한 연구의 경우,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장애에 대한 관점은 크게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구분된다. 의료적 모델은 신체적 손상의 관점에서 개인이 가진 의학적, 기능적 문제로 장애를 보며 개인 중심 모델 또는 치료모델이라고 한다. 반면에 사회적 모델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적인 문제로 장애를 간주하며, 환경중심모델 또는 사회행동모델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장애에 대한 관점은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복합적 모델로 전환되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세계보건기구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라는 장애에 대한 관점을 통합하고, 개인적, 사회적, 생물학적 관점을 반영한 모델(biopsychosocial model)로 설명하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를 2001년에 발표하였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이해하며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고찰하는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의학적 기준에 의존한 획일적 서비스를 탈피하기 위해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가구환경 등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강화하는 등의 청사진을 마련하였다.

것은 개별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 역시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이나 사회적 환경, 보건 서비스 등 다양한 차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은 모든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정, 직장, 교통, 시설, 지역 사회, 제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Oh & Jung, 2010).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지역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래에서 일반적인 수준에서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요인을 통제 변수로 하고 환경특성요인에 초점을 맞춰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난 뒤에, 장애인의 재난 취약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4.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대한 환경 특성 요인

장애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개인적인 특성과 함께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 요인들의 영향이 중요하며 최근 들어 특히 장애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Oliver, 1996; Pender, 1996; Finny & Moos, 1984). 1980년 이래 WHO가 사용해 왔던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가 ICIDH-2로 이행되면서 환경이 장애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즉 개인적 장애와 상황적 맥락(개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장애와 기능을 설명하면서 물리적, 인식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환경 요인들이 장애인에게 방해물이자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환경 요인들이 장애인들의 지역 만족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혀주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수를 고찰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부재로 유사 개념인 삶의 질과 행복,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수를 정리하였다.

1) 비공식적 사회환경

가족이나 친지, 친구, 이웃들은 대표적인 비공식적 사회환경에 해당되며 이들이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질병 또는 재해 이후 손상된 사회활동이나 사회관계를 다시 형성하는데 기반이 된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Nelson et al., 1992; Ellison, 1990; Schulz & Decker, 1985). 가족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친밀감은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llison, 1990). 이들 비공식적 사회 환경에 의한 사회적 지

지가 장애인들의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고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Schulz & Decker, 1985; Kennedy, 1989). 개인적인 능력과 기술의 제한 또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되어 지내기 쉬운 장애인이 지역사회성원으로 가족, 이웃, 친구, 타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 통합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Taylor, 1987; Anderson et al., 1992). 사회성원과 맺게 되는 사회관계가 장애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거듭되는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Kinney & Coyle, 1992; Fuhrer et al. 1992; Post et al., 1998; Corrigan et al. 2001; Jang et al., 2004; Miller & Chan. 2008; Müller et al. 2012; Lucas & Salavador-Carulla, 2012). 다른 요인들과는 달리 사회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관계 정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공식적 사회환경 - 사회보건복지서비스 이용

사회보건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도우며 장애인의 삶의 질과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자원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관련 복지서비스와 시책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Rosenfield(1992)는 정신과적 치료보다 직업재활서비스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고, Ittenbach et al.(1993)는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수와 경제적 지원(소득)이 지역사회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과 시책들은 장애인들에게 소득 및 의료적인 보장을 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Ittenbach et al., 1993). Cook(2009)은 지방자치단체서비스 이용이 지역사회 거주자들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지역사회 통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Anderson et al., 1992). 캐나다의 병원에 다니는 노인 장애인을 조사한 Grant와 Chappell(1983)의 연구에서는 차별적인 서비스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Hansenfeld(1987)는 정신장애인에게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더불어 기관 분위기, 대상자들 간의 관계, 전문인력과의 관계 등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이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3) 물리적 환경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환경은 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환경조건이다. 그러

나 현실의 물리적 환경은 비장애인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동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장애요인이자 장벽이 되고 있으며,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접근이나 이동에 제한을 가져오는 물리적 환경 때문에 유발 및 양산되는 이동 약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재활분야에서도 이전까지는 의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 등에 치중해 왔으나 점차 행정, 입법, 제도, 경제, 재활 공학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편의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이 장애인 재활의 중요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Willer et al., 1993).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물리적 환경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체 장애인은 실질적으로 사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물리적 환경 개선이 전제된다.

4) 문화적 환경

문화생활은 구성원들이 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적응 및 성장하는 것을 도와준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및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문화적 환경은 비장애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거나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문화적 실용성이나 가치를 학습 및 내면화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화적 환경 그 자체가 사회적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된다. Barbara(1997)에 따르면 레저와 레크레이션 활동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에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이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고 한다. Rosenfield와 Neese-Todd(1993)는 여가활동은 사회적 관계, 자아개념, 사회적 능력과 사회통합을 촉진시켜준다는 점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Oliver et al., 1996). Fine(1996)은 만족스러운 여가활동이 개인의 안녕감에 기여하며 자아실현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Dattilo와 Schleien(1994)은 여가활동이 장애인들을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설 1: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특성이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장애인의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은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장애인의 공식적 사회보장복지서비스는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특성(쾌적한, 편리한)은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4: 장애인의 문화적 환경 특성은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장애인의 지각된 재난 취약성이 미치는 영향

각국의 정부나 국제기구²⁾에서는 공통적으로 재난취약계층을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에 있어 제공되는 기본 안전 장비를 자유롭게 다루거나 이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신적·육체적 장애인(인지 지체, 시각, 청각), 어린이, 해당 지역 언어(영어)를 이해하고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심신 허약자 및 노숙자 등으로 포괄 정의했다. 재난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취약성의 몇 가지 공통 지표를 이론화했다(Cutter et al., 2003; Cutter & Finch 2008). 그 중 특히 노인 거주자(Salvati et al., 2018), 기존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 및 장애인(Uscher-Pines et al., 2009)은 자주 이동 문제에 직면하거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거나 재해 후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취약성은 관점과 사례들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객관적이고 물리환경적 조건 측면에서의 취약성 개념이 있고, 주관적이고 개인·집단 측면에서 개인 심리·인구사회경제학적 취약성 개념이 통용되고 있다. 전자에 의한 취약성은 민감성에 대한 리스크의 비율로 정의되기도 하며, 취약성은 불안한 위해보부터 시스템이 입게 되는 예견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혹은 시스템 피해의 또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최경식 외, 2017). 재난은 규모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특성이 다른 지역사회에 불균등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취약성 연구는 재난 발생 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환경과 인프라에 관련된 재난 취약요인에 대한 탐색에 집중했다(Jeong & Yun, 2018; Kettl, 2006). 지역 사회의 사회환경적,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취약성 수준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Alizadeh et al., 2018; Cutter et al., 2003; Jeong & Yoon, 2018; Martins et al., 2012; Moradi et al., 2017; Yoon, 2012; Yoon & Jeong, 2016). 하지만 이러한 취약성 개념을 통해서 실제 피해와 위해의 당사자인 인간이 취약성을 느낄 수 있을 물리적 환경을 통한 가정과 추측이 가능할 뿐 실제, 당사자 스스로가 체감하는 취약성의 정도를 측정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후자의 재난 취약성(disaster vulnerability) 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연구는 WHO(2002)에서 제시했던 정의와 Wisner et al.(2004)가 기술했던 내용이

2)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재해경감기구(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국제적십자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재난안전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등

다. 특히 재해 그 자체보다는 특정 인구집단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에 천착한 Wisner et al.(2004)는 취약성에 대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또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이들의 재해 영향의 예측, 대응, 저항 및 복구역량을 제약하는 것(2004: 7), 재난의 영향을 예견하고, 이를 극복하고 감내하며 회복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는 집단, 그 상황의 특성(2004: 1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Wisner et al., 2004). 또한 취약성이란 재난 복원력 수준과 비교·대비되는 재난에 대한 공동체의 민감성 수준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최경식 외, 2017). 이는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의 취약성 개념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사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준비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Alizadeh et al., 2018; Cutter et al., 2003; Jeong & Yoon, 2018; Moradi et al., 2017; Yoon, 2012; Yoon & Jeong, 2016).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교육 수준이 낮은 소수 민족은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인구를 대표한다(Alizadeh et al., 2018; Cutter et al., 2003; Jung & Yoon, 2018; Moradi et al., 2017; Yoon, 2012; Yoon & Jeong, 2016). 경제적 측면에서 소득과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거나 저임금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재난에 대비하고 복구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Alizadeh et al., 2018; Cutter et al., 2003, Jeong & Yoon, 2018, Moradi et al., 2017, Yoon, 2012, Yoon & Jeong, 2016). 또한 인구통계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향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소득 부족으로 인해 지진에 취약한 오래되고 보강되지 않은 주택에 사는 경향이 있다(Kettl, 2006).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낮은 그룹보다 재난 발생 후 재난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더 높은 소득과 능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Kettl, 2006).

한편, 개인과 집단 측면에서의 취약성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구통계학적 조건 및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측정되어왔고, 지역사회 환경의 물리적 취약성 특성은 천연 자원 요소들의 구성과 배치 및 인공건물의 입지와 노후도, 부실도 정도 등의 관련 요인으로 측정된다(Alizadeh et al., 2018; Cutter et al., 2003; Jeong & Yoon, 2018; Moradi et al., 2017; Yoon, 2012; Yoon & Jeong, 2016). 본 연구에서의 재난 취약성은 객관적 제약 수준에 대한 상대적 평가로서 장애인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재난 취약성 수준이다. 특히 각종 재난의 영향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수준이 높은가에 관한 장애인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해당한다.

국내 사회과학 분야에서 취약성 연구는 현재까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에 머물러 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재난안전대책마련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주된 방법론도 심층 인터뷰와 사례 연구에 한정되어 왔다(김명구 외, 2014; 김

윤희·류현숙, 2015; 최경식 외, 2017; 이주호, 2018; 구효정·주성빈, 2018; 조민상·김원기, 2019).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해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일 뿐만 아니라 재난의 상황에서도 취약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재난취약계층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신체적·경제적 불리함으로 인해 일반인에 비해서 행복감이 낮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재난 취약성과 결부지어 이들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직 탐구한 연구가 없다. 장애인은 과연 어떤 조건 하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특히 재난 취약성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행복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종합하면 장애인의 행복감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을 고려할 때, 재난 취약성 수준에 이러한 행복감의 영향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살펴보았을 때, 재난취약계층의 취약성 인식 수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재난 취약성은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취약함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여건과 장애의 조건 및 주변 환경의 구성은 재난의 상황을 인식하는 데에 있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서 실제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스로의 불안과 위기감 등 취약함을 느끼는 인식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결국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까지 연결된다. 물론 지역 만족도를 느끼는 원천은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위협으로부터의 회피와 그로 인한 심적인 안정감에서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재난 취약성은 장애인의 환경적 특성이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수립하였다.

가설 2: 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특성이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재난 취약성 수준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1: 장애인의 비공식적 사회관계망과 지역 만족도의 관계에 재난 취약성 수준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2: 장애인의 공식적 사회보건복지서비스와 지역 만족도의 관계에 재난 취약성 수준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설 2-3: 장애인의 물리적 환경 특성(쾌적한, 편리한)과 지역 만족도의 관계에 재난 취약성 수준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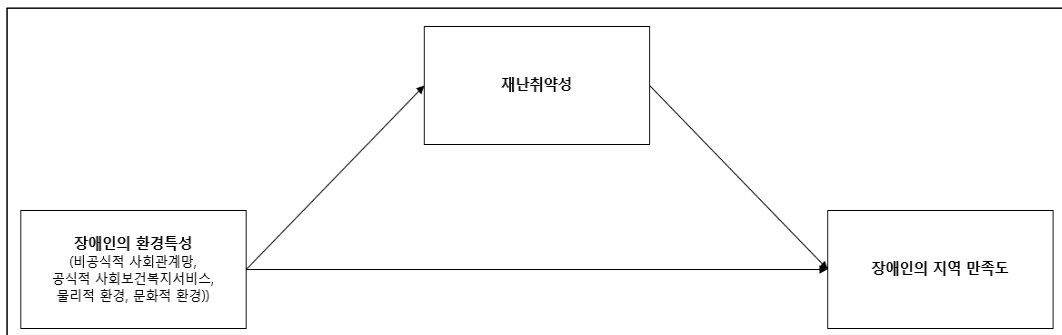
가설 2-4: 장애인의 문화적 환경 특성과 지역 만족도의 관계에 재난 취약성 수준이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앞서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지역 만족도에 대하여 환경 특성이 미치는 영향 관계를 설정하고, 장애인이 지각하는 재난 취약성의 수준에 따라 이러한 영향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종속변수인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장애인의 환경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데 지각된 재난 취약성 수준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인지를 검증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더 취약함은 물론이고 비일상적이고 예기치 못한 재난의 상황에서 더 가중된 취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재난 취약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모형이 설정되었다. 또한 장애인 지각하고 있는 재난 취약성 수준은 신체적·정신적·물질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지각된 재난 취약성은 환경 특성과 지역만족도와의 관계를 음(-)의 방향으로 매개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림 1〉 연구모형



2. 변수별 척도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환경 특성이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재난 취약성이 이들 간의 관계에 매개변수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독립변수는 장애인의 환경 특성 요인이다. 환경 특성 요인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공식적 사회보건복지서비스, 물리적 환경 특성, 문화적 환경 특성을 조사하여 활용하였다. 먼저 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은 지역 사회 내에서 지역 구성원으로서 장애인들 간에 구성된 신뢰, 참여, 사회적 규범,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공식적 사회보건복지서비스는 구성원들의 인적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 교육, 복지, 보건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환경 특성은 자연환경과 인프라로서 먼저 자연환경은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평가와 환경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요인들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인프라는 지역 사회의 기반시설로 커뮤니티의 장애인 구성원들의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로 정보통신(ICT), 교통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적 환경 특성은 지역의 고유문화 및 구성원들의 문화 향유 향상을 위한 요인이다. 문화 활동, 지역 문화 자산, 지역 문화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매개변수로서 재난 취약성은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지각하는 정신적·신체적 취약성에 대한 인식 정도이다. 이는 국외에서 재난 관련 문헌들을 참고하여 한국적 현실에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수정·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변수는 <표 1>에 제시되었고 재난 취약성은 매개변수로 응답자에게 민감도에 해당하는 항목을 각각의 문항으로 질의하고, 최저 1점부터 최고 5점까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해당 문항은 국내·외 문헌들에서 재난 관련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설문들을 참고하여 새롭게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취약성의 경우, 선행 연구 검토 결과 부합하는 취약성 측정 도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난에 대한 장애인들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기존 선행 문헌들을 참고하여 새롭게 취약성 측정 도구로 활용하였다.

셋째, 종속변수는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로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감 수준과 정도이다. 이는 일반적인 '귀하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생활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의 문항으로 지역의 거주 환경과 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감, 의미부여 정도를 나타내는 문항을 질문하였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 개인 특성 변수로는 장애인들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 소득, 경제활동 등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외에도 장애인들의 신체적인 특성도 변수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장애의 정도, 만성질환 보유 등을 조사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지표	척도
종속변수	지역 만족도		전반적인 지역 생활 여건에 관한 만족도 매우 낮다(1) ~ 매우 높다(5)
매개변수	재난 취약성	민감도	재난에 대한 장애인의 민감도 매우 낮다(1) ~ 매우 높다(5)
독립변수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환경 특성 요인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 수준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공식적 사회보장복지서비스		
	물리적 환경 특성	쾌적한 환경	
		편리한 환경	
문화적 환경 특성			
통제변수	성별(더미)		남성=0, 여성=1
	연령		실제 생년월일을 기입하여 만 연령을 계산
	결혼 상태 - 기혼 여부(더미)		미혼, 이혼·별거·사별 및 기타=0 기혼(사실혼, 주말부부, 배우자의 요양)=1
	학력		① 무학 ② 초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이상
	(월)가구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50만원 미만 ③ 150~200만원 미만 ④ 200~250만원 미만 ⑤ 250~300만원 미만 ⑥ 300~400만원 미만 ⑦ 400~500만원 미만 ⑧ 500~600만원 미만 ⑨ 600~700만원 미만 ⑩ 700만원 이상
	경제활동(더미)		활동 중=1 활동 안함=0
	만성질환 여부(더미)		보유함=1 보유하지 않음=0
	장애 정도(더미)		심함(중전 1~3급)=1 심하지 않음(중전 4~6급)=0

재난취약계층 중 장애인들의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성 요인에 관한 설문을 구성하였고, 각 요인에 따라 구조화하였다. 종속변수인 장애인들의 지역 만족도를 묻는 문항들은 독립변수인 환경 특성 요인에 대한 인지를 묻는 문항들과 구분하였다. 설문조사는 각 설문 항목별 문항에 주어진 보기 중에서 적절한 응답에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3. 연구자료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와 관련한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집하였다. 코로나19의 발생과

2차 팬데믹으로 인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령된 상황임에도 각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의 협조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직접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수행되었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비대면(팩스, 이메일 등) 조사도 함께 활용하였다. 서울지역 장애인 유효표본 404부의 응답지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의 목적 및 조사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확률 표본추출 중 임의 표본추출과 눈덩이 표본추출 방법을 병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실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직접 표본을 수집하는 것은 시간적·공간적·물질적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 분포하고 있는 각 장애인 복지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복지관을 방문하는 인원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후 해당 장애인의 가족, 친지, 혹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들에게 설문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설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안전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직접 조사를 최소화했다. 나아가 표본대상이 설문 문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들을 고려하여 방문 면접도 병행하였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인원수(명)	백분율(%)	항목	인원수(명)	백분율(%)	
지역 구분	강남	37	9.2	성별	남성	210	52.0
	강동	30	7.4		여성	194	48.0
	강북	20	5.0	항목		인원수(명)	백분율(%)
	강서	26	6.4	학력	초졸 미만	4	1.0
	관악	8	2.0		초졸	6	1.5
	광진	10	2.5		중졸	59	14.6
	구로	12	3.0		고졸	188	46.5
	금천	5	1.2	대졸	147	36.4	
	노원	18	4.5	항목		인원수(명)	백분율(%)
	도봉	11	2.7	결혼 상태	미혼	76	18.8
	동대문	17	4.2		기혼	283	70.0
	동작	6	1.5		이혼·별거·사별	36	8.9
	마포	21	5.2		기타	9	2.2
	서대문	17	4.2	항목		인원수(명)	백분율(%)
	서초	40	9.9	직업	관리직	30	7.4
	성동	7	1.7		전문가	11	2.7
송파	37	9.2	사무직		72	17.8	

항목		인원수(명)	백분율(%)	항목	인원수(명)	백분율(%)	
	양천	16	4.0	서비스직	28	6.9	
	영등포	11	2.7	판매직	28	6.9	
	용산	9	2.2	기능직	25	6.2	
	은평	23	5.7	기계조작	11	2.7	
	중구	2	0.5	단순노무	32	7.9	
	중랑	13	3.2	학생	8	2.0	
	성북	8	2.0	주부	47	11.6	
				무직	112	27.7	
항목		인원수(명)	백분율(%)	항목	인원수(명)	백분율(%)	
출생 연도	1950년 이전	79	19.6	장애 유형	지체	184	45.5
	1951-1960	74	18.3		시각	40	9.9
	1961-1970	100	24.8		청각	53	13.1
	1971-1980	64	15.8		발달장애	13	3.2
	1981-1990	59	14.6		뇌병변장애	16	4.0
	1991-2000	24	5.9		뇌전증장애	1	0.2
	2001년 이후	4	1.0		정신장애	18	4.5
항목		인원수(명)	백분율(%)				
장애 정도	1~3급	109	27.0	언어장애	39	9.7	
	4~6급	295	73.0	기타 신체장애	40	9.9	
합계		404명(100.0)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코딩한 후, SPSS v.25.0을 활용한 통계분석과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장애인들의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환경 특성 요인의 영향과 재난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 가설의 검증 결과를 제시하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검증 결과를 추론한 뒤에 정책적 함의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4. 변수의 측정

본 연구는 지역 만족도에 대한 환경 특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로 환경 특성 요인의 주요 변인인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공식적 사회보건복지서비스, 물리적 환경 특성, 문화적 환경 특성을 측정하였으며,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 요인으로 성별, 연령, 기혼 여부, 학력, 가구소득, 경제활동 여부, 만성질환 여부, 장애 정도를 함께 고려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한 매개변수로 재난 취약성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이들의 연구에서 단일요인으로 민감도와 같은 하위 개념에 대해서 측정하

였다. 각 설문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특정한 개념 측정을 위해서 여러 개의 문항을 이용한 경우는 평균하여 단일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측정문항과 신뢰도

변수 유형	측정 개념	질문 내용 및 진술문	Cronbach α	척도	
통제	성별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	-	
	연령	귀하의 만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기혼 여부	귀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학력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가구소득	귀 가정의 월 가구소득은 어떻습니까?			
	경제활동 여부	귀하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만성질환 여부	귀하는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장애 정도	귀하의 장애의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종속: 지역 만족도	지역 생활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귀하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생활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떠십니까?	-	5점	
독립: 환경 특성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자원봉사활동	.909	5점	
		지역 사회 단체활동			
		지역 사회 유대관계			
		지역 사회 교류 정도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			
		지역 현안 관련 공청회의 활동			
		신문/TV의 지역 관련 정치정보제공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들과의 협업			
	공식적 사회보장복지 서비스	장애인 서비스	-		
	물리적 환경 특성	쾌적한 환경	재활용 및 쓰레기수거 서비스		.777
			공기오염도 수준		
			공원·녹지 공간 수준		
		편리한 환경	대중교통		.705
			도로 상태 수준		
	인터넷 무료 공공장소 제공 수준				
문화적 환경 특성	여가 생활 수준	.856			
	주민자치센터/경로당 문화 프로그램				
	지역 문화 공간				

변수 유형	측정 개념	질문 내용 및 진술문	Cronbach α	척도
매개: 재난 취약성		지역 문화재		
		지역축제		
		지역 고유의 전통이나 문화		
	동작 제약도	재난 대피 시 개인 관련 귀중품 및 생필품을 챙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930	5점
		스스로 자택의 출입문을 열고 닫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난 발생 장소에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까?		
		재난 발생 시 스스로 지정 대피소까지 안전하게 이동 불가능합니까?		
		재난 발생 시 수직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난 대응 시 별도의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감각 민감도	재난 발생 시 타는 소리나 폭발 소리 등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습니까?	.595	
재난 발생 시 땅과 건물의 흔들림이나 물체의 떨림을 잘 느끼지 못합니까?				
재난 발생 시 손·발과 살갓 등의 피부로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합니까?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환경 특성 변수의 하위 요인으로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공식적 사회보장복지서비스, 물리적 환경 특성, 문화적 환경 특성을 구성하였다. 다소 제한적으로 변수 구성을 한 이유는 지역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나 경험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갖는 의미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역 만족도를 느끼게 만드는 인과 매커니즘에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그 양상에서 비장애인과는 다를 것임은 자명하다.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 역시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이나 사회적 환경, 보건 서비스 등 다양한 차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삶을 구성하는 요소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구분된다. 객관적 요소는 주로 경제적 생활 수준을 비롯한 사회인구학적 특성, 건강, 노동, 교육, 문화생활 수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가 많이 사용된다. 주관적 요소는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으로 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와 관련있다. 연구자들마다 삶의 구성요소 및 하위차원 구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환경의 영향을 측정하였다.

장애인의 지역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부재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연구결과들을 살펴본 결과 크게 개인 요인과 환경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개인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 수입, 결혼상태, 종교, 인종,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우울, 정서상태, 사회활동, 사회통합, 사교·레저활동 등이 포함되었다(Kreuter et al., 1998; Clayton & Chubon, 1994; Fuhrer et al., 1992; Lehman, 1986; Malm et al., 1981). 환경 요인으로는 가족 관계, 친구 및 직장 동료 관계와 지지적 태도, 이웃 관계와 지지적 태도, 장애인이 느끼는 비장애인의 인식(사회적 시간), 사회적 지원(공식적, 비공식적 지원), 지지모임, 프로그램 및 치료환경 등이 포함되었다(양옥경, 1997; 이익섭·윤경아, 2001; Kennedy, 1989; Malm et al., 1981).

이처럼 장애인의 삶의 질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장애인의 개인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환경 요인을 고려하긴 하되, 특정 치료 세팅이나 서비스환경 내에서의 삶의 질에 제한해서 다루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한된 환경과의 적합성에 치중해왔다(Halpern, 1994; Pilling & Watson, 1995). 따라서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지역 환경에 대한 폭넓은 고려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역사회 내의 환경 요소들까지로 환경 범위를 확장하여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 요인의 영향을 규명해 보려고 하였다. 치료적인 환경은 제외하고, 환경 요인의 범위에 비공식적 사회관계망, 공식적 사회보건복지서비스, 물리적 환경 특성, 문화적 환경 특성을 포함했다.

IV. 분석 결과

본 분석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본적으로 환경 특성 요인이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환경 특성 요인이 지역 만족도에 대한 효과 등의 연구들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나,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대한 연구와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환경 특성 요인 중에서 어떤 변수들이 지역 만족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낼지 확인해 볼 필요성에 의해서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과연 이 환경 특성 요인이 장애인들이 재난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는 재난 취약성에 영향을 미쳐 지역 만족도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서는 환경 특성 요인이 재난 취약성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영역이다. 환경 특성 요인이 재난 취약성을 거쳐 지역 만족도로 이어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4>는 재난 취약성에 대한 환경 특성 요인의 효과를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취약성을 설명하기 위해 투입된 환경 특성 요인 중 물리적 환경 특성의 쾌적한 환경과 문화적 환경이 통제변수로 설정된 개인 특성 요인 중 장애 정도와 소득수준, 학력, 기혼 여부, 경제활동 여부, 만성질환 여부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환경 특성 요인이 재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오류(S.E)	표준화 계수(β)	t	유의확률
(상수)		3.932	0.222		17.719	0.000
통제변수	성별	-0.053	0.038	-0.054	-1.401	0.162
	연령	0.001	0.002	0.021	0.404	0.686
	장애정도	0.332	0.046	0.297	7.191	0.000***
	소득수준	-0.064	0.013	-0.207	-4.906	0.000***
	학력	-0.079	0.031	-0.121	-2.537	0.012*
	기혼여부	-0.152	0.049	-0.140	-3.071	0.002**
	경제활동여부	-0.158	0.046	-0.157	-3.467	0.001**
	만성질환여부	0.112	0.048	0.106	2.326	0.021*
환경특성 요인	사회관계환경	-0.009	0.047	-0.010	-0.196	0.845
	쾌적한환경	-0.098	0.036	-0.111	-2.723	0.007**
	편리한환경	-0.017	0.044	-0.018	-0.389	0.698
	문화적환경	-0.109	0.053	-0.115	-2.037	0.042*
	사회보건복지서비스	0.038	0.029	0.057	1.316	0.189
F=30.173, p=.000, R ² =.501, Durbin-Watson=1.513						
종속변수: 재난 취약성						

*p<0.05, **p<0.01, ***p<0.001

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개인 특성 요인 중에서 장애 정도($\beta=0.297$, $p=0.000$)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만성질환 여부($\beta=0.106$, $p=0.021$)도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소득($\beta=-0.207$, $p=0.000$)은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학력($\beta=-0.121$, $p=0.012$) 역시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기혼 여부($\beta=-0.140$, $p=0.002$)도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경제활동 여부($\beta=-0.157$, $p=0.001$)도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환경 특성 요인 중에서는 물리적 환경 특성의 쾌적한 환경($\beta=-0.111$, $p=0.007$)이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적 환경 특성($\beta=-0.115$, $p=0.042$)도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독립변수로 설정한 환경 특성 요인 중 물리적 환경 특성 중 주변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어있는 환경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일수록 재난 취약성은 낮아지며, 문화적 환경이 잘 갖추어진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일수록 재난 취약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개인 특성 요인 변수 중에서 먼저 장애의 정도가 높고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재난 취약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소득이 높고 학력 수준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재난 취약성이 낮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기혼 상태의 장애인들은 재난 취약성이 낮으며,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들 역시 재난 취약성이 낮았다.

다음 <표 5>는 지역 만족도에 대한 환경 특성 요인의 효과를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행복감을 설명하기 위해 투입된 환경 특성 요인 중에서는 사회관계환경, 물리적 환경 특성의 편리한 환경, 사회보건복지서비스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 요인 중에서 소득수준과 학력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5> 환경 특성 요인이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분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오류(S.E)	표준화 계수(β)	t	유의확률
(상수)		0.539	0.373		1.444	0.149
통제변수	성별	0.044	0.064	0.031	0.688	0.492
	연령	0.003	0.003	0.059	0.958	0.339
	장애정도	-0.066	0.078	-0.041	-0.847	0.398
	소득수준	0.061	0.022	0.137	2.758	0.006***
	학력	0.122	0.052	0.132	2.347	0.019*
	기혼여부	0.012	0.083	0.008	0.150	0.881
	경제활동여부	-0.12	0.077	-0.086	-1.612	0.108
	만성질환여부	0.075	0.081	0.050	0.931	0.352
환경특성 요인	사회관계환경	0.214	0.080	0.161	2.688	0.008***
	쾌적한환경	-0.027	0.061	-0.022	-0.450	0.653
	편리한환경	0.337	0.073	0.251	4.589	0.000***
	문화적환경	0.069	0.090	0.051	0.767	0.444
	사회보건복지서비스	0.127	0.049	0.133	2.608	0.009***
F=12.942, p=.000, R ² =.301, Durbin-Watson=1.948						
종속변수: 지역 만족도						

*p<0.05, **p<0.01, ***p<0.001

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환경 특성 요인 중 사회관계 환경($\beta=.214$, $p=.008$), 물리적 환경 특성의 편리한 환경($\beta=.337$, $p=.000$), 사회보건복지서비스($\beta=.127$, $p=.009$)가 유의미한 정(+)의 관계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개인특성요인 중에서는 소득수준($\beta=.061$, $p=.006$)과 학력($\beta=.122$, $p=.019$)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독립변수의 환경 특성 요인 중 사회관계가 원만한 환경 하에 살고 있는 장애인 일수록, 물리적 환경 특성 중 주변 환경이 편리하게 조성되어있는 환경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일수록, 사회보건복지서비스를 원활하게 수혜받고 있는 장애인일수록 지역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 요인 중에서 먼저 소득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지역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환경 특성 요인과 지역 만족도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데 재난 취약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양자 간 논리적인 인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였다. 매개효과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따라 완전 매개효과와 부분 매개효과로 분류할 수 있다. 매개효과 스텝 3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비표준화 계수(β)보다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비표준화 계수(β)보다 작을 때 매개변수는 완전 매개하는 것이다. 부분 매개효과를 검정하는 스텝 3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독립변수 역시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경우 부분 매개하는 것이다.

〈표 6〉 매개회귀분석(종속변수: 지역 만족도) 효과

구분		스텝 1 재난 취약성	스텝 2 지역 만족도	스텝 3 지역 만족도
(상수)				
통제변수	성별	-0.053	0.044	0.033
	연령	0.001	0.003	0.003
	장애정도	0.332***	-0.066	0.001
	소득수준	-0.064***	0.061**	0.048*
	학력	-0.079*	0.122*	0.106*
	기혼여부	-0.152**	0.012	-0.018
	경제활동여부	-0.158**	-0.123	-0.155**
	만성질환여부	0.112*	0.075	0.098
환경특성요인	사회관계환경	-0.009	0.214**	0.213**
	쾌적한환경	-0.098**	-0.027	-0.047

구분		스텝 1 재난 취약성	스텝 2 지역 만족도	스텝 3 지역 만족도
	편리한환경	-0.017	0.337***	0.333***
	문화적환경	-0.109*	0.069	0.047
	사회보건복지서비스	0.038	0.127**	0.135**
매개변수	재난취약성			-0.201*
R ²		.501	.301	.311
F		30.173	12.942	12.565

*p<0.05, **p<0.01, ***p<0.001

분석 결과,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스텝 1에서 환경 특성 요인 중 물리적 환경 중 쾌적한 환경과 문화적 환경이 부(-)의 영향을 나타냈고, 개인 특성 요인 중 장애 정도와 만성질환 여부는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소득수준, 학력, 기혼 여부, 경제활동 여부는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설명력은 50.1%이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스텝 2에서 환경 특성 요인 중 사회관계환경, 물리적 환경 중 편리한 환경, 사회보건복지서비스가 지역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개인 특성 요인 중 소득수준과 학력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설명력은 30.1%이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스텝 3에서는 독립변수인 환경특성요인 중 사회관계환경($\beta=.213$, $p=.008$), 물리적 환경의 편리한 환경($\beta=.333$, $p=.000$), 사회보건복지서비스($\beta=.135$, $p=.006$)가 유의미한 정(+)의 관계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환경, 편리한 환경, 사회보건복지서비스가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재난 취약성($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관계환경과 편리한 환경에 대해서만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사회보건복지서비스($p<.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개인 특성 요인의 소득수준($\beta=.048$, $p=.035$)과 학력($\beta=.106$, $p=.042$)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경제활동여부($\beta=-.155$, $p=.045$)는 유의미한 부(-)의 관계를 나타냈다. 소득수준, 학력, 경제활동이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재난 취약성($p<.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에 따라 이 세 하위요소에 대해서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독립변수의 환경 특성 요인 중 사회관계가 원만하고 물리적 환경 특성 중 주변 환경이 편리하게 조성되어있는 환경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일수록 지역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재난 취약성은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보건복지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장애인일수록 지역 만족도는 높았지만 재난 취약성은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개인 특성 요인 중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학력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지역 만족도가 높아졌는데, 재난 취약성은 이들의 관계를 역시 부분 매개하였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보다 지역 만족도가 낮았으며, 재난 취약성은 이들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은 독립변수인 장애인의 환경 특성 요인과 통제변수인 개인 특성 요인이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고루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재난 취약성이 부의 방향으로 매개한다는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환경 특성 요인이 어떻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들이 지각하는 재난 취약성이 이들 관계를 과연 매개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중 404명의 표본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비장애인에 대한 지역 만족도 연구 경향성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환경 특성 요인을 고려하여 진행하였다는 점과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에서의 지역 만족도에서 진일보하여 비일상의 재난 취약성을 고려한 실증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개인의 지역 만족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 만족도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적영역의 투자와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정책의 수요자 측면에서 장애인의 지역 만족도와 재난 취약성을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영향 관계 검증을 위한 분석으로 단일변수 혹은 각 변수들의 총합의 평균으로 계산된 변수값으로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게 엇갈려 판단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는 표본과 통계상의 예상치 못한 설문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장애계에서 극한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그동안 대한민국은 장애인들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권과 자립권의 법적 제도와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집중해 왔다면 현재는 장애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과거와 비교해서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반 시설과 서비스들이 확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이 실제 느끼는 지역 만족도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와는 괴리와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아직 정책의 수요

자이자 권리의 주창자인 장애인의 실제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정책의 구현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분석의 수준을 확대하여 환경 특성 요인이 지역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재난 취약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재난에 대해서 지각하고 있는 취약성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만족도 수준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난의 상황에서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더 불안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 취약성을 낮추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은 적극적으로 수요자의 지역 만족도를 반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탑-다운 방식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이루어졌던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은 삶의 질의 제고라는 목표하에 가시적으로 각종 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시설 및 인프라의 확충으로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인식하여 삶에서 체감하는 지역 만족도의 확대로까지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중요한 존립기반인 지역주민의 지역만족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커뮤니티에 대한 총체적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의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커뮤니티라는 것이 지역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지역주민들이 “내 동네에 만족한다.”라는 의식을 가질 때 커뮤니티의식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단순히 기본적 욕구 충족을 넘어서 행복감, 삶의 질 향상 등 질적인 측면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므로 지역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양적 요소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총체적 조건으로서의 물적, 질적 환경 요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발전을 전제로 지역사회 정부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지역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지역의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지역 환경 요소를 얼마나 확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 주인의식과 정부에 대한 의식 제고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본다면 모든 공공서비스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사회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등 객관적 서비스 요소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감, 삶의 질 등 주관적 만족 서비스 요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만족도는 결과적으로 거버넌스 참여의 확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개개인의 자율적 선택이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함에 존재 이유가 있고, 또 실제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킬 때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활여건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환경에 집중하여 지역 만족도를 높

이게 되면, 이를 통해 정주 만족도가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할 관심과 의지가 증진되어 거시적인 의미에서 삶의 만족을 제공한다는 인과관계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된 데에 있어서 표본집단의 제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표본수집의 시기의 문제도 있을 것이며, 표본의 공간상 분포 문제도 존재한다. 장애의 유형과 장애의 정도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유효표본 확보를 위한 장애인 표집에 치중하였다는 표본집단의 제약이 첫 번째이다.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시기에 표본수집이 이루어져서 재난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상승한 시기에 장애인 인식조사가 이루어져서 평소와 왜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표본수집이 이루어졌지만 대표성 있는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더 진일보된 후속 연구를 위한 사전 선행 작업으로서 만족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으로 대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고려하고 그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부 정책과 서비스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장애인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를 회복하고,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과 주변의 자구적·자체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삶의 질과 만족도, 행복을 위해서는 커뮤니티의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시설과 자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커뮤니티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지방정부와 커뮤니티의 노력과 협조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 참여와 회의를 거친 대타협이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 환경의 개선이 지역 구성원들의 지역 만족도로 이어지고, 이에 더해 소속감과 애착을 가지고 거버넌스로 이행하게 될 때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의 건설은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동안 관심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통해서 민관거버넌스의 구현을 시도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소외된 계층까지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여 객관적인 삶의 질 향상을 물론이고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느끼며, 행복감을 느낄 때 가능해질 수 있다.

【참고문헌】

- 강기훈·김성길. (2019).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여군 부여읍 구교 1·3리의 새뜰마을사업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4(1): 95-107.
- 구효정·주성빈. (2018). 재난약자를 위한 정보매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18(5): 83-92.
- 김명구·양기근·정기성. (2014). 자연재난에 의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복지 개선 방향: 전라북도 임실군의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0(9): 113-135.
- 김윤희·류현숙. (2015).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 취약성에 관한 연구: 정보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1(3): 151-176.
- 김이수. (2016).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 연구 -공동체 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0(2): 157-180.
- 김이수·최예나. (2020). 지역주민의 디지털 참여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3): 253-281.
- 김주진·나주몽. (2021). 한국 청년의 지역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비수도권 도시 내 지역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4(1): 211-232.
- 김주현·김한수. (2021).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 만족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2(3): 157-164.
- 남용현. (2014). 장애인 복지정책에서의 이용자 참여 강화 -독일의 개인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732-742.
- 남진열·전영록. (2012).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0(43): 513-530.
- 박해금. (2018).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2): 163-174.
- 배은석·손지현·박해금·송영지. (2017). 지역사회애착이 지역사회만족에 미치는 영향: 소득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1): 137-156.
- 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6.
- 성보훈·윤선아. (2010). 행복의 정의와 발달단계별 결정요인. 「뇌교육연구」, 6: 103-134.
- 양옥경. (1997). 노인정신건강과 삶의 질. 「이화여대 과학연구 논총」. 1, 101-131.
- 양지훈·박지혜. (2019). 지역별 문화수준이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기도 삶의 질 조사를

- 활용하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2(1): 77-104.
- 이경영·김범석·정문기. (2017). 주거환경만족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애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47-70.
- 이미애·이승중. (201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 -Kee 6자본 모형의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25(2): 1-29.
- 이익섭·윤경아. (2001). 가족의 지지가 장애인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5: 315-340.
- 이주호. (2018).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재난안전관리 지원정책 방안. 「위기관리연구논총」, 2(2): 47-65.
- 이혜승. (2012).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특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12(4): 619-638.
- 이희창·박희봉·정우일. (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9.
- 조민상·김원기. (2019). 자치단체의 재난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강화방안. 「한국융합과학회지」, 8(2): 240-250.
- 최경식·양기근·송은란. (2017). 재난안전약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재난안전정책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13(9): 67-82.
- 최영출. (2014).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과 행복도의 인과적 관계. 「한국자치행정학보」, 28(1): 1-23.
- 최예나. (2016). 전라북도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개인요인과 지역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0(3): 291-312.
- 최지연·홍은영. (2016). 수원시민의 삶의 만족과 도시정서변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7(1): 89-122.
- Alizadeh, M., Ngah, I., Hashim, M., Pradhan B., & Pour, A. (2018). A hybrid analytic network proces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ANP-ANN) model for urban earthquake vulnerability assessment. *Remote Sensing*, 10(6): 975.
- Anderson, D. J., Lakin, K. C., Hill, B. K., & Chen, T. H. (1992). Social integration of older persons with mental retardation in residential facilitie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96(5): 488-501.
- Barbara A. H. (1997). *Promoting quality of life through leisure and recreation*, In Robert L. S., & Gray N. S. (eds.), AAMR.
- Bardo JW, Hughey JB. (1984). The structure of community satisfaction in a British and an American communit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4(2): 151-157.
-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Campbell A, Converse PE, Rodgers W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havis, D. M., Wandersman, A. (2002).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In A Quarter Century of Community Psychology (pp/ 265-292). Springer, Boston, MA.
- Clayton, K. S., & Chubon, R. A. (1994). Factors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life of long-term spinal cord injured person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5(6): 633-638.
- Cook, W. L. (2009). The intersection of geriatrics and chronic kidney disease: frailty and disability among older adults with kidney disease. *Advances in chronic kidney disease*, 16(6): 420-429.
- Corrigan J. D., Bogner J. A., Mysiw W. J., Clincho, D., & Fugate L. (2001). Life Satisfaction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Journal of Head Trauma Rehabilitation*, 16(6): 543-555.
- Cutter, S. L., Boruff, B. J., & Shirley, W. L. (2003). Social vulnerability to environmental hazards. *Social Science Quarterly*, 84(2): 242-261.
- Cutter, S. L., & C. Finch. (2008). Temporal and spatial change in social vulnerability to natural hazards. *Proc. Natl. Acad. Sci.*, 105(7): 2301-2306.
- Dattilo, J., & Schleien, S. (1994). Understanding leisure services for individuals with *mental 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now called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2(1): 53-59.
- Deseran, A. F. (1978). Community satisfaction as definition of the situation: Some conceptual issues. *Rural Sociology*, 43(2): 235-249.
- Ellison, C. G. (1990). Family ties, friendship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black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May): 298-310.
- Fine, A. H. (1996). *Leisure, living, and quality of life*, In Renwick, R., Brown, I., & Nagler, M. (eds.), *Quality of life in health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Sage Publication.
- Finny, J. W., & Moos, R. H. (1984).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research: examples from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program.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7: 151-167.

- Fitz, B. M., Lyon, L., & Driskell, R. (2016). Why people like where they live: Individual-and community-level contributors to community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6(3): 1209.
- Fuhrer M. J., Rintala D. H., Hart K. A., Clearman R., & Young M. E. (1992). Relationship of Life satisfaction to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 among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Living in the Communit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3(6): 552-557.
- Gamo, B. R., Kim, D. S., & Park, D. B. (2019). Factors influencing community satisfaction in rural South Korea. *Journal of Rural and Community Development*, 14(3).
- Grant, K. R., & Chappell, N. L. (1983). What is reasonable is true: life satisfaction and functional disability among day hospital participant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7(2): 71-78.
- Grzeskowiak, S., Sirgy, J. M., & Widgery, R. (2003).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Predictors and outcomes. *Journal of Regional Analysis and Policy*, 33(2): 1-36.
- Gundelach, P., & Kreiner, S. (2004).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Cross-Cultural Research*, 38(4): 359-386.
- Halpern, A. S. (1994). Quality of lif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hood. *Social Indicators Research*, 33: 193-236.
- Hannscott, L. (2016). Individual and contextual socioeconomic status and community satisfaction. *Urban Studies*, 53(8): 1727-1744.
- Hansenfeld, Y. (1987). Power in social work practice. *Social Service Review*, 61(3): 469-483.
- Hayes, E. P. (2005). *The role of employment as a role model on community competence and life satisfac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Heaton T, Fredrickson C, Fuguitt GB, et al. (1979). Residential preferences, community satisfaction, and the intention to move. *Demography*, 16(4): 565-573.
- H. K. Oh, & D. J. Jung. (2010). *A study of determinant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person, Rehabil. Rec.*, Vol. 14: 151-173.
- Ittenbach, R. F., Bruininks, R. H., Thurlow, M. L., & McGrew, K. S. (1993). Community integration of young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A multivariate analysis of adjustm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4(4): 275-290.

- Jang, Y., Mortimer, J. A., Haley, W. E., & Borenstein Graves, A. R. (2004). The role of social engagement in life satisfaction: its significance among older individuals with disease and disabilit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23(3): 266-278.
- Jeong, S., & Yoon, D. K. (2018). Examining vulnerability factors to natural disasters with a spatial auto-regressive model: The case of South Korea. *Sustainability*, 10(5): 1651.
- Kasarda, J. D., and Janowitz, M.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3): 328-339.
- Kennedy, C. (1989). Community integration and well-being: toward the goals of community care. *Journal of Social Issues*, 45(3): 65-77.
- Kettl, D. J. (2006). *On risk and disaster: Lessons from Hurricane Katrina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Kinney, W. B., & Coyle, C. P. (1992). Predicting life satisfaction among adult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Rehabilitation*, 73(9): 863-869.
- Kreuter, M., Sullivan, M., Dahllöf, A. G., & Siösteen, A. (1998). Partner relationships, functioning, mood and global quality of life in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and traumatic brain injury. *Spinal cord*, 36(4): 252-261.
- Ladewig, H., & McCann, G. C. (1980). Community satisfaction: Theory and measurement. *Rural Sociology*, 45(1): 110.
- Lehman, A. F., Possidente, S., & Hawker, F. (1986). The quality of life of chronic patients in a state hospital and in community residences. *Psychiatric Services*, 37(9): 901-907.
- Lucas, R., & Salavador-Carulla, L. (2012). Life satisfaction in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3(4): 1103-1109.
- Lu M. (1999). Determinants of residential satisfaction: Ordered logit vs. regression models. *Growth and Change*, 30: 264-897.
- Malm, U., May, P. R., & Dencker, S. J. (1981).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schizophrenic outpatient: a checklist. *Schizophrenia Bulletin*, 7(3): 477-486.
- Martins, V. N., e Silva, D. S., & Cabral, P. (2012). Social vulnerability assessment to seismic risk using multi-criteria analysis: The case study of Vila Franca do Campo (São Miguel Island, Azores, Portugal). *Natural Hazards*, 62(2): 385-404.
- Moradi, M., Delavar, M. R., & Moshiri, B. (2017). A GIS-based multi-criteria analysis model for earthquake vulnerability assessment using Choquet integral and

- game theory. *Natural Hazards*, 87(3): 1377-1398.
- Müller R., Peter C., Cieza A., & Geyh S. (2012).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Skills in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y—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Spinal Cord*, (2): 94-106.
- Nelson, G., Hall, G. B., Squire, D. & Richard, T. Walsh-Browers. (1992). Social network transaction of psychiatric treatment patients. *Social Sciences & Medicine*, 34(4): 433-435.
- Nunkoo R, Ramkissoon H. (2011). Power, trust, social exchange and community suppor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2): 997-1023.
-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Macmillan.
- Oliver, J., Huxley, P., Bridges, K., & Mohamad, H. (1996). *Quality of life and mental health services*. London & N. Y. Routledge, pp. 85-99.
- Pender, N. J. (1996). *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3rd ed)*. Stanford. Connecticut: Appleton & Lange.
- Pilling, D. (1995). *Evaluating quality in services for disabled and older people (Vol. 7)*.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Post M. W. M., de Witte L. P., van Asbeck F. W. A., van Dijk A. J., & Schrijvers A. J. P. (1998). Predictors of Health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in Spinal Cord Injur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9(4): 395-401.
- Rosenfield, S. (1992).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of the chronic mentally ill.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Dec.): 299-315.
- Rosenfield, S., & Neese-Todd, S. (1993). Elements of a psychosocial clubhouse program associated with a satisfying quality of life. *Hospital & Community Psychiatry*, 44(1): 76-78.
- Schulz, R., & Decker, S. (1985). Long-term adjustment to physical disability: The role of social support, perceived Control, and self-bla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5): 1162-1172.
- Sirgy, M. J., Gao, T., & Young, R. F. (2008). How does residents' satisfaction with community services influence quality of life (QOL) outcomes?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3: 81-105.
- S. J. Tak, & E. K. Shin. (2013).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state for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WHODAS-II., *Rehabil. Rec.*, Vol. 17(3): 83-117.
- Taylor, S., J. D. Biklen. & J. Knoll. (1987). *Community integration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New York, NY: Teachers Colleges Press.

- Theodori, G. L. (2001). Examining the effects of community satisfaction and attachment on individual wellbeing. *Rural Sociology*, 66: 618-628.
- Uscher-Pines, L., A. J. Hausman, S. Powell, P. DeMara, G. Heake, & M. G. Hagen. (2009). Disaster preparedness of households with special needs in Southeastern Pennsylvania. *Am. J. Prev. Med.* 37(3): 227-230.
- Willer, B., Rosentbal, M., Kreutzer, J. S., Gordon, W. A., & Renpal, R. (1993). Assessment of community integration following rehabilitation for traumatic brain injury. *Journal of Head Traumatic Rehabilitation*, 8(2):75-87.
- Wisner, B., Blaikie, P., Cannon, T. & Davis, I. (2004). *At Risk. Natural hazards, people's vulnerability and disasters*. 2nd edition. Routledge. London-New York.
- Yoon, D. K. (2012). Assessment of social vulnerability to natural disasters: A comparative study. *Natural Hazards*, 63(2): 823-843.
- Yoon, D. K., & Jeong, S. (2016). *Assessment of community vulnerability to natural disasters in Korea by using GIS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In Quantitative region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analysis for sustainability in Korea (pp. 123-140). Singapore: Springer.

최 병 윤: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행정연구원 공공리더십·갈등관리연구실 수석연구원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행정, 인사행정, 조직행정, 재난관리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커뮤니티웰빙이 재난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2022), “재난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의 재난 취약성 척도 개발 연구”(2022), 사라리더의 모성적 사유와 안전권에 기반한 중앙과 지방정부 안전취약계층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제언“(2019) 등이 있다(bychoi@kipa.re.kr).

